

제목: “마하나임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53-32장 2절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거하며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허락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쉬지 않은 길을 갑니다. 아직도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라반의 허락을 어렵게 받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많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확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 야곱이 해결되지 못한 _____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2. 야곱이 _____ 있다는 생각 중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3. 아직도 믿고 있던 _____라는 것에 빠져있었을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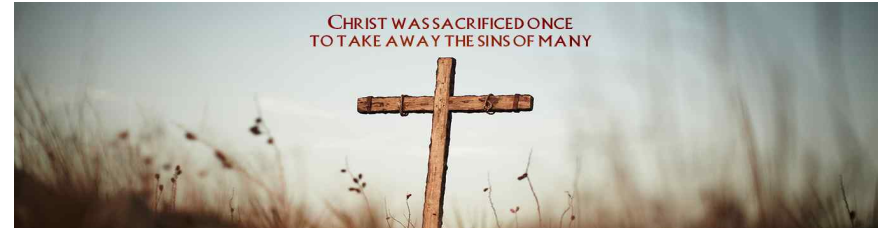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 990.00
주일	\$ 130.00
합계	\$ 1,120.00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에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창세기 31장 53-32장 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Genesis 31: 53-32: 2 구약 48 페이지 Presider
- 말씀 “마하나임의 하나님”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먼 곳에서 있었던 환송예배)

그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며 또한 교회 개척에 가장 먼저 동참했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니었지만 너무 일찍 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세상에 살며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긴 것 같이 더 쓰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권사님은 10년 전 암이 몸에 발견되어 힘 있게 기도하던 중 3달 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0년을 더 살며 많은 일들을 해 내었다.

그 중에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한 교회에 4대가 예배하는 귀한 일에 첫 테이프를 끊었다. 또한 그 10년 동안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교회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교회로 성숙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유가 무엇이고 충성과 섬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음을 전달했다. 그리고 61세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거의 매주일 성도들이 뜨끈한 국(soup)을 좋아한다고 집에서 큰 양동이에 펄펄 끓는 국을 그대로 가지고 오곤 하셨다. 교회에 남들보다 일찍 도착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 거의 새 차에 가까운 SUV 차 트렁크를 열고 그 큰 양동이를 번쩍 들어 교회 친교실에 놓곤 했는데 그 때 자동차 문을 열면 국 냄새가 진동을 한 것을 기억한다. 나라면 내 차에 냄새가 나는 큰 양동이의 국을 늘 가지고 다녔을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번으로도 자동차에 냄새를 없앨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맛있게 먹고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 한가지였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덩으로 살았던 권사님의 10년은 너무나 아름다운 한 개의 영화와 같았던 것이다.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장례식에 참석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론은 출가한 자녀들까지 모두 LA에 모이기로 했다. 나의 가족 각자가 그 권사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전부 있었고 또한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장례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모습이 투병으로 인하여 고생을 한 모습이어서 많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위로를 오히려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10년을 복되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천국의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인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이 되었을까?

그 장례예배에 참석하는 일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장례식 참석은 무엇이라고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 그리고 슬픔 끝 큰 깨달음의 시작 시간이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 될까? 그 권사님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더욱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다짐하게 되었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0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